

## 욥의 기도와 축복

-아세르 인트레이터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고난의 일부분은 그의 "친구들"이 그가 잘못을 했다고 그를 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참소는 아주 의롭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도록 부탁하지 않으면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8 - 그런즉 너희는 ... 내 종 욥에게 가서 ...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야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그에게 베풀지 않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이 축복받도록 드린 기도는 그가 회복되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욥기 42:10 -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받을 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자신의 축복도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갑절이나 축복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가 무고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가 치유 받도록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20:7, 17**).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 받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있습니다(**약 5:14-16**). 예수아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축복하고(마 5:44),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눅 6:38)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축복받는 열쇠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가 용서받고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것인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 유대인의 왕에 대한 반응



이 메시지에서 아세르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선포에 대해 보이는 그들의 서로 다른 반응,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 반응을 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 연립정부를 위한 긴급 기도



이스라엘 정부 구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선거이고, 다음은 연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기도 지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하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정부가 확장되어야 (더 여러 개의 정당이 연립을 구성해야) 할까요? 극정통 유대교는 재정부와 내무부에서 얼마나 통제력을 가져야 할까요? 내각에서는 누가 주요 자리에 임명되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며 긴급히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W.H.I.M

-데이빈 루돌프 David Rudolph

이사야 6:1-8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상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초대하는 계시와

대답이 전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 예배(Worship) - 성결(Holiness) - 중보(Intercession) - 사명(Missions)

예배는 우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성결과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다시 우리의 관점을 바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높은 위치에서 보고 예수아와 함께 중보하는 데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늘의 관점을 공유하며 중보 가운데 주님의 부담감을 느끼면 우리의 귀가 열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하는 성령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예배와 성결과 중보가 합쳐지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예배:**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의 슬픔과 웃시야 왕의 죽음을 둘러싼 위기 가운데, (이 늙은) 이사야는 눈을 들어 하늘의 왕이신 주를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성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마주하고 자신이 부정하며 하나님의 존전의 불에 닿아 깨끗케 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중보:**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로 깨끗케 되고 입술이 정해지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와 주님의 부담감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명:**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

중보 가운데 주님의 부담을 받으면 우리는 가서 열방과 백성 앞에서 주님을 대변하라는 주님의 마음의 외침을 듣는 자리로 이끌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되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보내지도록 도전 받기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